

새벽 1부

# 누구를 위하여 달은 떠오르나



드라크 영 내, 작은 변경 마을 헬카타.

최근 그곳에 태양 숭배 사교의 불온한 움직임이 감돌고 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빛의 사제"가 백성들을 선동하여 태양 숭배로 이끌고 있다고도.

헬카타는 영주의 손길이 닿지 않아 촌장의 자치에 일임되었던 땅.

기사의 대처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아직은 고요하지만 어딘가 불길한 안개를 품은 땅에, 귀경들은 발을 디었다.

어리석고 가여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혹은 태양의 사교를 근절하기 위해서.

## ◆시나리오 제원

권장 플레이어 인원 : 4인

권장 PC 일화 수 : 1개+스토리아 추가 일화

편 : 1

사용 서플리먼트 : 기본 , 헬레티카 느와르 , 노블레스 스토리아

## 이야기의 개요

### ● 이야기의 진상

헬리아는 PC1이 함께 있을 당시에도 태양의 꿈을 꺾었다. 그러나 PC1에게 걱정끼치고 싶지 않다거나, PC1이 자신을 태양송배자로 볼까봐 두려웠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실을 숨겨왔다. PC1이 떠나고 지주를 잃은 마음은 결국 이 세계를 기만적인 밤의 어둠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 마음에 이끌려 찾아온 백야의 여왕에게 서훈되어 "빛의 사제"가 되었고, 태양 송배를 거둬들이며 태양의 파편을 몸에 품는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 사람들을 태양 송배로 경도하여 그 고향을 초토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기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나, 이미 태양을 품은 그 마음은 더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백성을 태양 송배로 경도해나갈수록 내면의 태양은 커진다. 헬카타의 태양 송배를 끝으로 내면의 파편은 한계까지 모인다. 그리고 이는 곧 태양 부활의 단초가 될 것이다.

## NPC

### ● "빛의 사제" 헬리아(\*샘플 NPC 이름)

PC1이 백성이었을 때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소중한 인연. PC1이 기사가 되어 마을을 떠난지 얼마 되지 않아 "빛의 사제"가 되어 고향을 태양 사교의 늪으로 가라앉혔다. PC1을 소중히 여기지만 태양이 떠오른 세상을 옳다고 여기고 그를 위한 희생은 결단할 각오가 있다. 기사의 눈을 피해 여러 벽지를 돌며 태양송배를 퍼뜨려왔다. 백야의 여왕이 가진 환시의 힘으로 내면의 태양을 가리고 있다.

### ● "백야의 여왕"

모든 것이 베일에 싸인 태양의 사도 중 하나. 아름다운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백성에게 태양의 환시를 보여준다. 환시를 보게 된 백성은 태양송배에 경도되고 만다.

## 핸드아웃

<b>PC1</b>	사라지지 않는 인연 빛의 사제 : 【우】와 【애】	【스토리야】변절한 친구
<p>서언</p> <p>귀경이 백성이던 시절, 귀경에게는 돌도 없는 소중한 인연이 있었다. 그러나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p> <p>귀경이 기사가 되어 명예롭게 이름을 알릴 때, 그는 모독적인 태양의 서훈을 받고 "빛의 사제"가 되어 고향을 태양 사교의 늪으로 가라앉혔다.</p> <p>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늦은 일. 고향은 초토가 되었고, 그는 자취를 감추었다.</p> <p>이제 귀경은 그를 찾고 있다. 이유를 묻기 위함인가, 혹은 인연의 최소한의 도리로서 다른 기사의 손에 그 목숨을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함인가.</p> <p>"빛의 사제"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귀경은 "빛의 사제"가 자취를 감춘 그임을 확신했다. 귀경은 그를 쫓아 헬카타로 향했다.</p> <p>※귀경의 서훈 연령은 30세 이하. 기사력은 5년 이내가 된다.</p> <p>DR은 PC1의 PL과 상의하여 설정에 맞게 "빛의 사제"를 작성할 것. PC1의 혈연, 친구 무엇이든 상관없다. 백성 시절의 인연이 되도록 작성한다.</p>		

<b>PC2</b>	사라지지 않는 인연 백야의 여왕 : 【노】와 【경】	【스토리야】전 태양신도
<p>서언</p> <p>끝없는 창공. 기분 좋게 빵을 스치는 바람.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아름다운 세계.</p> <p>태양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꿈. 귀경은 백성이던 시절, 태양의 꿈에 현혹되어 태양 신도가 되었다. 운이 좋게도 과거를 잊고 지금은 기사가 된 몸.</p> <p>하지만 꿈 속에서는 계속해서 태양이 있던 세계의 꿈을 꾸다. 꿈속에서 사도는 귀경에게 손을 뻗는다.</p> <p>어느 쪽이 옳은 것인가. 귀경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매일매일이 고뇌어린 길.</p> <p>그러던 와중, 헬카타의 불온한 소문을 듣고 귀경은 길을 나섰다. 직접 태양을 마주하고 나름대로의 답을 찾고 싶다.</p>		

<b>PC3</b>	사라지지 않는 인연 태양의 사도 : 【살】	【스토리야】붉은 달이 내려준 사자
<p>서언</p> <p>아아, 저주받을 태양이여. 오래전의 귀경은 태양이 일으킨 비극에 직면했다.</p> <p>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불바다가 되어버린 마을. 광신에 젖어 서로 싸우는 백성. 그리고 그 비극을 관조하듯 중앙에 군림하는 태양의 사도.</p> <p>그러나 귀경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다. 내 안의 붉은 달을 받아들이고 태양과 맞서 싸워, 태양의 사도를 물리쳤다.</p> <p>귀경의 위업은 칭송받아 마땅한 것. 당주마저도 새로운 달의 사자의 탄생을 축복하며 귀경을 치하하였다.</p> <p>그러나 영웅에는 그에 마땅한 기대가 따르는 법. 귀경은 태양을 멸할 의무를 가졌다. 상야국에서 일체의 태양의 파편도 남기지 않는다.</p> <p>멸할지어다! 귀경이 있는 한 부드러운 밤의 포옹은 방해받지 않으리라.</p> <p>불온한 움직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귀경은 발걸음을 재촉해 헬카타로 향했다.</p>		

<b>PC4</b>	사라지지 않는 인연 태양의 사도 : 【주】 혹은 빛의 사제 : 【연 혹은 애】	【스토리야】거짓 영웅 혹은 【스토리야】지켜야 할 핏줄
<p>서언</p> <p>귀경은 많은 세월을 지내온 기사다. 태양과의 사투에서도 어떠한 상처도 없이 태양을 격퇴한 역전의 용사.</p> <p>이제 많은 이들이 귀경의 무훈을 칭송한다. 그런 귀경의 귀에 들려온 헬카타에 대한 소식은 우연이었을까.</p> <p>귀경은 제령의 영주에게 알리지 않고 헬카타로 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로지 스스로의 파문어린 마음만이 알고 있겠지.</p> <p>※귀경의 「기사력」은 「오래된 기사」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최대값이 된다. 귀경은 【스토리야】 2개중 1개를 선택하여 자신의 【스토리야】로 한다. 【스토리야】로 얻은 인연은 비밀로 하고 따로 적을 것.</p>		

<b>PC4</b>	비밀 핸드아웃	【스토리야】거짓 영웅
<p>귀경은 사냥개다. 개에는 목줄이 매여 있기 마련이다.</p> <p>그럼에도. 주인을 위해 싸울 것인가, 주인을 물 것인가는 스스로의 결정인 것이다.</p> <p>이 【비밀】을 공개하면 【스토리야】가 공개된 것으로 치고, 일화는 주문이 된다.</p> <p>이 【비밀】을 공개했을 때, 귀경을 제외한 모든 PC는 귀경에 대한 느와르를 2점씩 입는다.</p> <p>귀경은 추가 행동 《빛바랜 영웅의 검》을 얻는다.</p>		

<b>PC4</b>	비밀 핸드아웃	【스토리야】지켜야 할 핏줄
<p>귀경은 지키기 위해 제 자신도 깎아낼 수 있는 자다.</p> <p>이 【비밀】을 공개하면 《흐르지 않는 모래》가 《사명捨命의 모래》로 변화한다.</p> <p>단, 이 【비밀】을 공개했을 때, 귀경을 제외한 모든 PC는 귀경에 대한 느와르를 1점씩 입는다.</p> <p>【스토리야】의 사라지지 않는 인연이 「봉인」「사망」「소멸」했을 시 이 【스토리야】를 잃는다.</p>		

<p>◇ PC4 【스토리야】 운용 가이드</p> <p>PC4가 선택한 【스토리야】는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PL이 알지 못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스토리야】 거짓 영웅을 그대로 적용할 시, 세션 몇 시간만에 모든 PL이 PC4의 【스토리야】를 눈치 채버릴 것이다. 아래는 룰 변경 요소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토리야】 거짓 영웅 (아래의 효과들은 스토리야 공개 시, 룰북대로 처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4가 받는 「태양에 대한 느와르」는 동일하게 처리하되, 따로 얼마나 받았는지를 메모해두자. 이후 PC4가 원하는 타이밍이나 「태양에 대한 느와르」로 「소멸」에 이를 시, 쌓인 느와르 만큼을 「태양에 대한 느와르」에서 경감하고 「태양의 사도」에 대한 통상의 느와르로 변경한다. 이 효과로</li> </ul> </li> </ol>		
---	--	--

「태양에 대한 느와르」가 「소멸」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소멸」하지 않는다.

- PC4가 「태양의 파편」의 [조연]에게 루쥬와 느와르를 줬을 경우, 【존재점】이 정상적으로 감소하되, [조연]의 행동치가 2씩 증가한다.

## 2. 두 【스토리아】의 사라지지 않는 인연

-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대신, 시작 시 임의의 PC에게 인연의 종류를 하나 골라 사라지지 않는 인연으로 취득한다. 이후, 비밀이 공개될 시 사라지지 않는 인연을 스토리아의 것으로 되돌린다.

## 편

## 서막

귀경들은 태양 송배 사고의 흉흉한 소문이 도는 헬카타에 당도한다. 가장 가까운 마을이라고 해봐야 말을 타고 족히 한나절은 달려야 할 만큼 헬카타는 벽지의 폐쇄적인 촌락이다. 거친 바위 언덕 위에 조성된 마을로 향하는 길목을 깊고 어두운 숲이 감싸고 있다. 나무 뿌리 아래로 차가운 개울이 흐르고 발목 어귀에는 짙은 안개가 내리깔려 있다. 자애로운 붉은 달이 헬카타의 고요한 정취에 간간히 드리운다. 가장 높은 언덕 위로 폐성의 뾰족한 첨탑이 솟아있다.

드문드문 끊어진 길을 따라 귀경들은 마을에 발을 디뎠다. 하나 둘, 창문에 커튼을 치고 문을 걸어잠그는 소리가 들려온다. 백성들은 기사들의 눈을 피하며 황급히 어딘가로 숨어버린다. 정적에 잠긴 마을의 거리를 망토를 뒤집어 쓴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걷는다. 그 중 가장 앞에 선 이는 공손한 태도로 자신을 헬카타의 촌장이라고 소개한다.

「기사님. 사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촌장을 추궁하거나 목숨을 위협해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거나 「사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 일상막

### ◆막의 제원

#### NPC종별

[단역] 헬카타의 백성 (병사역 : 주인은 "빛의 사제")

[단역] 촌장 (권속 : 주인은 "빛의 사제")

[조연] "빛의 사제"

**PC배치** : [공정]

**NPC배치**

정원 : 헬카타의 백성 x 3

공정 : 헬카타의 백성 x 3 / 촌장

옥좌 : "빛의 사제"

**존재점**

단역 : 1점

"빛의 사제" : [참가 PC 수 x 5] 점

**행동치**

단역 : 없음

조연 : [참가 PC 수 x 13]

**벽의 꽃**

백성 : 무력하게 쓰러진다.

촌장 : "빛의 사제"를 바라보고는 지면으로 추락한다.

"빛의 사제" :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선다.

**장소**

정원 : 잘 관리된 안개꽃의 소담한 정원

공정 : 창백하고 서늘한 복도

옥좌 : 큰 유리창이 나있는 배전의 참회실

**반주**

"빛의 사제"에 대한 임의의 감정

**종료 조건**

조연을 벽의 꽃으로 만든다 / 2라운드가 지난다.

## ● 구상

촌장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곳은 배전과도 같은 건물이다. 흰 안개꽃이 심어진 정원은 소담하다. 배전은 최근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은 듯 길이 잘 닦여 있다. 그러나 마을과는 떨어져 있고 바깥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창백한 복도를 지나자 밖에서 보였던 것보다 큰 규모의 참회실에 다다른다. 위로는 창을 두어 달빛이 내리달는 중앙의 단상에 헬리아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있다. 헬리아는 참회를 막 끝낸 신도가 막 그러하듯 소매를 거두고 천천히 눈을 뜬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배전의 사제 헬리아입니다」

그 뜨인 눈은 어떤 태양빛도 품지 않은 채로. 그가 N년전 한 마을을 멸망시킨 빛의 사제라는 것이 의심될 정도로 어느 태양빛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정말 빛의 사제가 맞는가?

「이곳의 분들은 기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환영의 뜻을 밝히지 못한 것은 부디 양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아는 순종적으로 눈을 감는다. 붉은 달빛 아래의 그 모습은 꼭 독실한 배전의 신도와도 같아보였다.

## ● 상세

DR은 제원에 따라 각 NPC를 배치한다. 그리고 모든 NPC의 【존재점】을 공개한다. 이 시점에서 PC는 [공정]에만 배치할 수 있다.

## ● 후 구상

"빛의 사제"는 한걸음 물러서며 눈을 감고 미소짓는다. 귀경들은 어느 순간부터 윗창에서 드리우는 무언가가 붉은 달빛이 아님을 눈치챈다. 그것은 꺼림칙한 빛을 내며 기사들을 희롱하듯 그림자의 움직임에 따라 커튼처럼 너울거리고 있었다.

「그분께서 저를 맞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빛의 사제"가 눈을 뜬다. 그 눈은 태양빛을 머금어 불길하고 형형하게 빛난다. 소매 안쪽에서는 옅은 빛이 뿜어져나오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은 그 저주스러운 빛을 입어 어둠 속에서도 희게 빛을 내고 있었다. 귀경들은 마치 기사의 구현화처럼, 환시가 덮어씌워져 있었음을 눈치챌 것이다.

「미안해. PC1. 작별인사는 나중에 미뤄야해」

"빛의 사제"가 뒷문으로 도망가고, 그와 동시에 윗 창이 산산히 부서진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름다운 선지자가 쏟아진 유리파편을 지르밟고, 기사와 "빛의 사제" 사이에 서서 우아하지만 위압을 담은 눈으로 귀경들을 응시한다. 태양의 사도이자 왕관을 쓴 백색 빛의 주인, 백야의 여왕이다.

## ◆ "빛의 사제"와의 대화

- 너는 "빛의 사제"가 맞는가?

「"빛의 사제"라고는 불리고 있지만 제가 그런 존재가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빛이라고 할만한 것을 진정으로 품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 네가 헬카타에 태양 숭배를 퍼뜨리고 있는가?

「이곳의 분들은 기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조가 아닌 다른 마음의 안식처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저로 인해 경도되었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 헬카타의 백성들은 어째서 기사를 두려워하고 피하는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는 폐성이 있습니다. 전 영주의 성채이자 늑대인간의 요새가 되었던 곳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날은 수확제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이

영주님의 변모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의 백성들은 전부 끔찍한 학살극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입니다」

- 타락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소멸했습니다」

- 헬카타에 머무르는 목적은?

「이곳에는 당시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면 이런 분들 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네가 N년전 PC1의 고향을 태양 송배로 이끈 것이 맞는가?

「저는 그분들께 우리 모두가 기만당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였는지를 설파했습니다. 이 기만으로 얼룩진 밤을 일깨우기 위해서요」

- 어째서 기사들을 불러들였는가.

「저는 쫓기며 떠도는 것에 지쳤고, 만약 끌려가 처형당할 길이라면 PC1을 다시 보고 인사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 손으로 처형당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 ▼ PC를 대하는 태도

다정하고 부드러운 어투를 쓴다. 특히 PC1에게는 헤어질 동안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그 가까운 친근감은 과거와 다르지 않다. 만약 PC1이 배신감을 느껴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한다면 이전처럼 말을 붙여오며 PC1의 마음을 달래려 노력할 것이다.

막간

전쟁막

#### ◆막의 제원

##### NPC종별

[조연] 백야의 여왕

PC배치 : [옥좌]

NPC배치

정원 : 없음  
궁정 : 백야의 여왕  
옥좌 : 없음

#### 존재점

백야의 여왕 : [참가 PC 수 x 6] 점

#### 행동치

단역 : 없음  
조연 : [참가 PC 수 x 14]

#### 벽의 꽃

백야의 여왕 :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사라진다.

#### 장소

정원 : 배전의 뒷문  
궁정 : 유리창이 깨져 떨어져 있는 복도  
옥좌 : 배전의 참회실 중앙 단상

#### 반주

백야의 여왕에 대한 【살】  
단, PC2는 백야의 여왕에 대한 임의의 감정을 선택한다.

#### 종료 조건

조연을 벽의 꽃으로 만든다 / 2라운드가 지난다.

## ● 구상

마침내 저주스러운 태양의 사도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꺼림칙한 빛을 두르고 귀경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보던 사도는 PC2에게 이르러 슬픈 낯을 꾸며내고는 가증스러운 말을 건네온다.

「어느 날부터 당신은 꿈을 외면하게 되셨지요. PC2, 부디 내 손을 잡아. 제가 당신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때 PC4가 【스토리아】거짓 영웅을 채용했다면, 백야의 여왕은 입모양으로 「기사와 함께 제게 맞서세요」라는 명령을 전해온다. DR은 이 전투로 인해 【일화】가 「추문」이 되지 않음을 PC4의 PL에게 알려야 한다.

세계의 적인 태양을 쳐부수는 것은 기사의 마땅한 도리이니라. 어리석고 가여운 백성을 현혹하는 백야의 여왕을 쓰러뜨리고 그 악한 빛에 파멸을 가져다주기 위해 귀경들은 검을 들었다.

## ● 상세

DR은 제원에 따라 각 NPC를 배치한다. 그리고 모든 NPC의 【존재점】을 공개한다. 이 시점에서 PC는 [옥좌]에만 배치할 수 있다.

## ● 후 구상

배전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이 하나둘 무너졌다. 기사와 사도의 전투를 버텨내지 못하고 건물이 먼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기사들이 밟고 있는 바닥도 금가 떨어져 내린다. 아무것도 없어야 할 아래에는 촘촘한 창살로 만들어진 듯한 지하 감옥이 있었다.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라도」

무너져가는 배전 속, 도움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새어나왔다. 구하지 않는다면 천장이 내려앉아 지하에 생매장당하고 말겠지.

「이제 여명의 시간. 더럽혀진 지상을 태워버리고 세계는 찢어미 속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기도와 함께 맞이하라. 긴 밤을 밝히는 진정한 태양이 나타날 것이니」

백야의 여왕은 깨진 창 너머의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우아한 낯으로 돌아선다. PC들이 막아선다고 해도 강력한 태양빛으로 반격만 한 채 물러설 것이다.

PC들이 지하감옥의 백성들을 구한다면, 그들은 태양에 아직 경도되지 않은 백성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기에 감금된 그들은 폐성에서 벌어질 거대한 태양 숭배의 의식을 기사들에게 보고한다. 또한 태양의 신자가 된 가족들을 구해달라는 간청을 해온다. 만약 구하지 않는다면, 폐성에서 모독적인 의식이 벌어지려 한다는 말을 남기고 무너지는 배전에 깔려 죽는다.

막간

종막

### ◆막의 제원

#### NPC종별

[단역] 태양의 신자 (주인은 "빛의 사제")

[조연] "빛의 사제" (2라운드가 되는 시점, 혹은 【존재점】이 반 이상으로 감소되었을 시 가증스러운 현자 데이터로 변경한다)

PC배치 : [정원]

## NPC배치

정원 : 태양의 신자 x 5

궁정 : 태양의 신자 x 5 / "빛의 사제"

옥좌 : 없음

## 존재점

단역 : 1점

"빛의 사제" : [참가 PC 수 x 10] 점

## 행동치

단역 : 없음

조연 : [참가 PC 수 x 16]

## 벽의 꽃

태양의 신자 : 「아아, 태양님... 태양님이시여...」를 내뿜으며 쓰러진다.

"빛의 사제" : 무릎이 꿇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통의 신음을 낸다.

## 장소

정원 : 폐성의 방치된 정원

궁정 : 핏자국과 발톱자국이 남아있는 성벽 위

옥좌 : 아래로 절벽을 두고 있는 외성의 침탑

## 반주

"빛의 사제"에 대한 【살】

단, PC1은 "빛의 사제"에 대한 임의의 감정을 선택한다.

## 종료 조건

조연을 벽의 꽃으로 만든다

## ● 구상

새가 날지 않는 밤. 백성 하나 보이지 않는 텅빈 거리, 텅빈 마을. 귀경들은 최후의 결전을 예감하며 헬카타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잡은 폐성으로 향한다. 과거에는 위용이 있었을 모습이나 이제 그 영광은 찾아볼 수 없다. 정원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그 군색함이 이루 말할 데가 없으며, 성벽으로 올라가는 길은 핏자국과 발톱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떠나주시길 바랐지만, 기사님들은 쉽게 물러서주지 않을거란걸 알았습니다」 성벽 위로 수많은 백성이 엎드려 하늘을 우러러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들의 눈은 달을 보고 있지 않다. 붉은 달을 바라보면서도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 부활을 소원으로 한다. 그 눈에 깃든 것은 오로지 맹목적인 광신이다. 아아, 이 얼마나 모독적인 사교의 현장인가! 신도들의 중앙에 선 "빛의 사제"는 체내에서 태양빛을 내비치며 경건한 승정처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 「이 세계는 기만적인 밤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깨닫지 않는다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세계를, 귀신의 손아귀에서 해방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기사들이 지나온 정원으로도 햇불이 하나둘 밝혀진다. 태양을 숭배하는 각지의 백성들이 모여든다.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태양을 향해, 태양의 재림을 영원하면서!

「PC1. 조금이라도 더 이 밤의 진실을 일찍 깨달았다면 네가 기사가 되지 못하게 막았을텐데」

- 상세

DR은 제원대로 각 NPC를 배치한다. 그리고 모든 NPC의 【존재점】을 공개한다. 이 시점에서 PC는 [정원]에만 배치할 수 있다.

막간

후막

## 1. 에필로그 : "빛의 사제"를 처치했다

- 구상

귀경들의 공격을 마지막으로, "빛의 사제"의 무릎이 꺾인다. 하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 눈에 비치는 것은 오로지 붉은 달 뿐이다. "빛의 사제"의 비통한 신음이 안개처럼 흩어진다. 눈물과 피가 뒤섞여 똑똑 떨어져내린다. 애석하게도 움켜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

「거의 다 왔는데. 태양의 재림이 멀지 않았는데. 태양이시여. 지고한 빛이시여」  
침탐에 희고 불길한 백야가 커튼처럼 내려앉는다. 그 가증스러운 태양의 사도는 PC들의 경계도 신경쓰지 않고 "빛의 사제"를 마주한다. "빛의 사제"의 비탄어린 눈에 경애와 숭배가 담긴다. 백야의 여왕은 자애로운 미소로 "빛의 사제"에게 손을 뻗는다. "빛의 사제"는 눈을 감고 구원받은 자처럼 행복에 겨운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백야의 여왕은 부록의 《너는 구원받았다》의 행동을 사용한다. 이때 PC4가 【스토리아】 지켜야 할 핏줄을 채용했다면, DR은 PC4의 PL에게 비밀 핸드아웃을 공개하고 《사명의 모래》로 느와르를 대신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여왕의 손이 "빛의 사제"의 가슴을 꿰뚫는다. 그 손을 빼내면, 크고 강대하게 빛나는 태양의 파편이 피범벅이 되어 쥐여진다. "빛의 사제"는 울컥 피를 쏟아내며 쓰러진다. 이 시점에서

"빛의 사제"는 사망한다. PC4가 행동으로 느와르를 대신 받는다면 죽지는 않지만, 쓰러져 전투불능의 상태가 된다. 이때 "빛의 사제"가 사망했다면 PC1은 즉시 【갈증】을 2점 얻는다. 백야의 여왕은 "빛의 사제"에게서 꺼낸 빛의 파편을, 소중한 것을 품듯이 품에 안는다. 파편의 빛과 백야가 공명하듯이 서서히 합쳐진다. 지면과 맞닿은 하늘이 붉게 물든다. 태양룡의 난 이후 이러한 하늘은 단 한번도 있을 수 없었다! 귀경들은 눈 앞의 사도에게 쉽게 다가서지 않는다. 아니, 다가설 수 없는 것이다. 태양의 사도를 마주하고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야 흔한 일이지만, 경우가 다르다. 그 강대한 태양의 파편에게서, 작은 태양이나 되는 존재감을 느끼고 있었다.

PC가 백야의 여왕을 막으려 다가가는 순간, 태양빛이 폭발하며 압도적인 열풍과 함께 기사들은 성벽 아래로 튕겨나간다. 성채 하나와도 맞먹는 거대한 불의 날개가 펼쳐진다. 그 가벼운 날개짓 한 번으로 하늘의 색깔이 변한다. 붉었다가 보라색으로, 밤의 어둠을 희롱하면서. 대지도, 백성도, 모든 것이 불에 타들어간다. 누군가가 잿더미가 되어가며 중얼거렸다.

「아아, 태양이시여. 드디어...」

## 2. 에필로그 : 모든 PC가 소멸한 경우

### ● 구상

귀경을 이루고 있는 육체가 소멸되어 간다. 밤의 장막이 찢겨지고 무방비로 빛에 노출된 가여운 영혼. 포근한 어둠도 귀경을 구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현화가 흩어지듯이 먼지가 되어 흩어지겠지.

PC1이 흩어진 자리 앞에서 "빛의 사제"는 주저앉아 눈을 감는다. 그 몸은 한눈에 보아도 이제 한계. 가슴을 중심으로 열기를 내뿜는 거대한 태양의 파편이 살갓을 뚫고 맥동하고 있다. 오밀조밀하게 퍼진 빛의 혈맥은 지금도 서서히 흘러내리며 "빛의 사제"의 육신과 영혼, 전부를 갉아먹고 있다. 기생하고 있다. 종래에는 그 자아조차도 갉아먹고 말 것이다. 백야의 여왕이 기사들의 먼지를 짓밟고 손을 뺀다.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고.

「이것으로 인간은 해방됩니다. 태양 부활의 비원을 이루고 세계의 구원자가 되는겁니다」 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빛의 사제"를 백야의 여왕이 자애롭게 안고 품는다. 파편의 빛이 백야에 흡수당한다. 지면과 맞닿은 하늘이 붉게 물든다. 태양룡의 난 이후 이러한 하늘은 단 한번도 있을 수 없었다! 그 강대한 태양의 파편에게서, 작은 태양이나 되는 존재감이 느껴진다.

태양빛이 폭발하며 압도적인 열풍과 함께 성채 하나와도 맞먹는 거대한 불의 날개가 펼쳐진다. 그 가벼운 날개짓 한 번으로 하늘의 색깔이 변한다. 붉었다가 보라색으로, 밤의 어둠을 희롱하면서. 대지도, 백성도, 모든 것이 불에 타들어간다.

아아, 개탄스럽구나. 귀경들이 흩뿌려진 대지는 초토가 되었고, 태양이 그 날개를 펼쳐 달을 향해 날아오른다. 누군가가 잣더미가 되어가며 중얼거렸다.

「아아, 태양이시여. 드디어...」

### ▼ 이후의 정세에 대하여

헬카타에 등장한 태양의 파편은 삼각해전에 기록된 강대한 태양의 파편보다 크거나 최소한 그와 맞먹을 것이라 기록된다. 도시 3개 정도의 대지가 초토가 되어버린 이 끔찍한 재앙은 드라크에는 물론이고 제령의 공작가, 이단의 사회까지도 위기의식을 촉발시킨다. 가뜰이나 혼란스러운 드라크의 정계궁정에는 태양에 대한 방비 부실에 대한 질책 또한 쏟아질 것이다. 발하이트 공은 PC들을 통해 사태 파악과 가장 효율적인 토벌책을 마련한다. 만약 PC들이 소멸하고 없다면 방비 미흡에 대한 실책을 인정하고 새로운 토벌대를 파견할 것이다. 당연히 이후 그녀의 정치적인 지위는 약화되고 이것은 곧 드라크의 후계구조, 게이즈발트의 정세, 더 나아가 상야국 각 제령에 판도를 뒤바꿀만한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만약 PC들이 전부 소멸했다면 이후 "빛의 사제"(그리고 그가 불러낸 것으로 추측되는 강대한 태양의 파편)에게 【대죄자】의 명칭이 부여된다. DR은 【대죄】롤에 대해 설명하고 2부의 이야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며, PC들의 소멸 위험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리고 2부를 이어갈지를 상의하라. 1부에서 세션을 종료한다면 이후 막대한 피해와 수많은 영웅의 목숨으로 태양의 파편을 토벌한 것으로 한다. PC들의 후일담은 자유롭게 연출하여도 좋다.

## 부록

### ■ 전투 행동

명칭	개요	목표 치	거리	대상
효과	개요			
《너는 구원받았다》	Märtyrer des Brandopfers	4	1	다른 1체
이 [행동]은 태양의 파편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대상에게 느와르를 2점 입힌다. 이 행동은 [대항판정]할 수 없다.	즉 더럽혀진 몸을 정화하는 구원. 탄생으로 잠겨진 죄악에서 벗어나 빛의 이름으로 해방되리라.			
《빛바랜 영웅의 검》	Trübes Heldenschwert	6	1~2	지역
대상에 있는 임의의 존재에게	가로되 개에게 매인 목줄. 주인을 배반하면 그			

<p>느와르를 3점 입힌다. 대상이 태양의 파편이라면 5점의 느와르를 추가로 입는다. 귀경은 자신에 대한 느와르를 3점 입는다. 또한, 귀경은 세션 종료 후 「태양경(노블레스 스토리아)」이 되며 더는 PC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p> <p>대상이 태양의 파편이 아니라면 이 행동이 입히는 느와르는 전부 「태양에 대한 느와르」가 된다. 「귀경의 【목적】은 자신의 비밀을 아는 모든 기사를 말살한다」로 변경된다.</p>	<p>목을 조이고 얼마되지 않는 한 좀 자유 의사마저 박탈한다. 하지만 딱 한번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면.</p>
<p>《사명捨命의 모래》      Opferndes Sandkorn      0      1~2      다른 1체</p>	
<p>누군가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느와르를 받았을 때, 귀경은 「자신에 대한 느와르」를 그 3배만큼 얻을 수 있다. 그 [캐릭터]는 느와르를 받지 않으며 「사망」「소멸」을 무효로 한다.</p>	<p>가로되 수호의 맹약. 귀경이 가진 기사로서의 신념, 격전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비록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p>